

#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5-01호 / 2005년 1월 24일

##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의 현황과 향후 전망

후징옌 (胡景岩)

中國 商務部 外資司 司長

### I. 발표 요지

#### 1. 중국의 외자유치 현황 및 특징

- 對中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11년 연속으로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개도국이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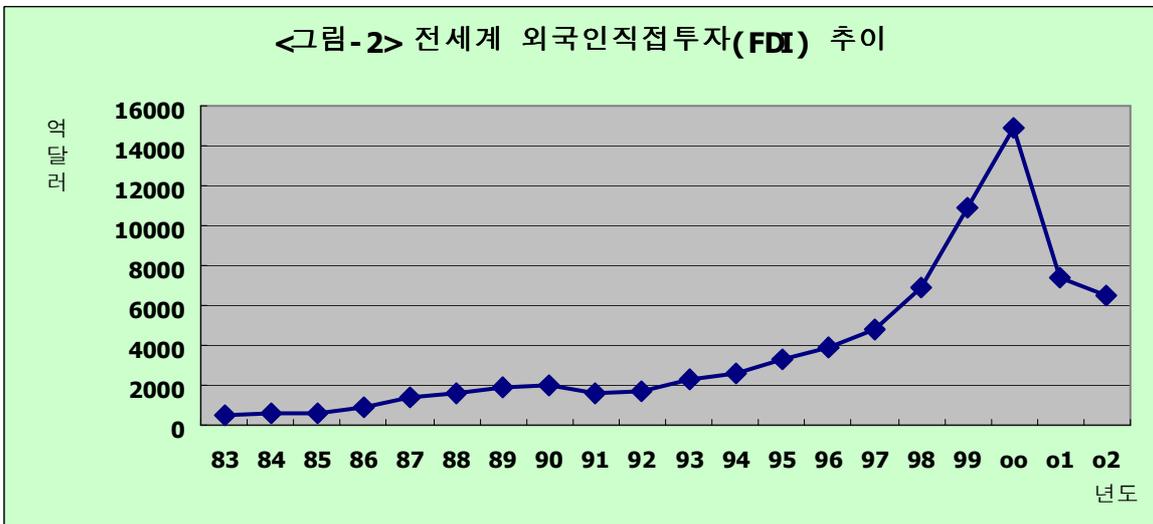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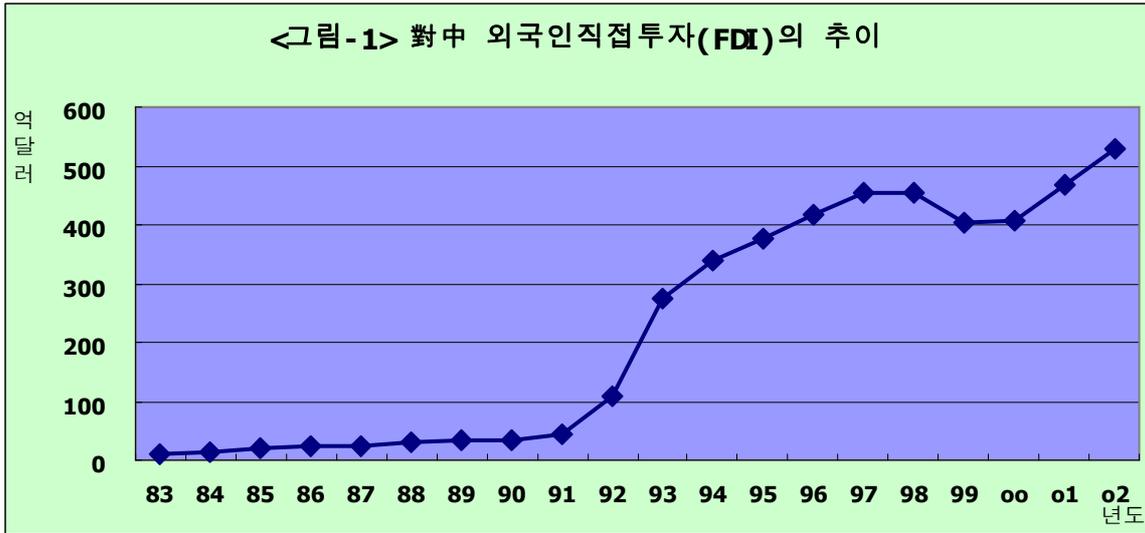
<표 1> 최근 對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억달러)

|                 | 외자기업<br>설립 | 전년동기대비<br>증가율 (%) | 계약기준     | 전년동기대비<br>증가율 (%) | 도착기준     | 전년동기대비<br>증가율 (%) |
|-----------------|------------|-------------------|----------|-------------------|----------|-------------------|
| 2003            | 41,081     | 20.22%            | 1,150.70 | 39.03%            | 535.05   | 1.44%             |
| 누계<br>(2003년까지) | 465,277    | -                 | 9,431.30 | -                 | 5,014.71 | -                 |
| 2004년 10월       | 35,202     | 7.66%             | 1,189.99 | 34.19%            | 537.81   | 23.47%            |

- 내국민대우, 정책의 투명성 등 WTO 협정을 준수하고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있어 對中 외국인투자는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

- 최근 은행, 보험, 통신 등 서비스분야의 시장도 개방 확대
- 2003년 12월말까지 한국의 對中투자(누계기준)규모는 계약기준 366.5억 달러, 도착기준 196.9억 달러이며, 투자기업의 수는 27,128개를 기록함.



- 세계 500대 기업 중, 이미 약 400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對中투자도 활발
- 30여 개의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가 중국에 설립되었고, 이미 진출한 다국적기업들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또한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의 제품구매 확대를 위해 구매센터 설립

o 세계적인 기업인 월마트는 중국에서 연간 약 150억 달러 구매

□ 외국인투자는 기술력 향상에 기여

- IT산업, 석유화학산업 등 대규모 첨단기술(高新技術)프로젝트, 대형 자본집약형 및 기술집약형 산업, 기초설비산업에 외국인투자가 대폭 증가

- 다국적기업의 R&D 센터 설립도 뚜렷한 증가 추세(현재까지 600여 개 설립)

□ 주장삼각주, 장강삼각주 등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

-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중국으로의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과 풍부한 가공제조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

- 특히 IT·IC 산업은 점차적으로 완비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o 다수의 한국기업은 최근 강소성 난징(南京)에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 최근 들어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 고조

- 중국은 금융, 보험, 증권, 소매유통, 대외무역, 여행, 회계, 법률, 의료, 교육, 운수, 대출 등 서비스업 대부분에 대해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실시

- 다국적기업들은 상기 업종에 지속적인 관심, 조속한 진출을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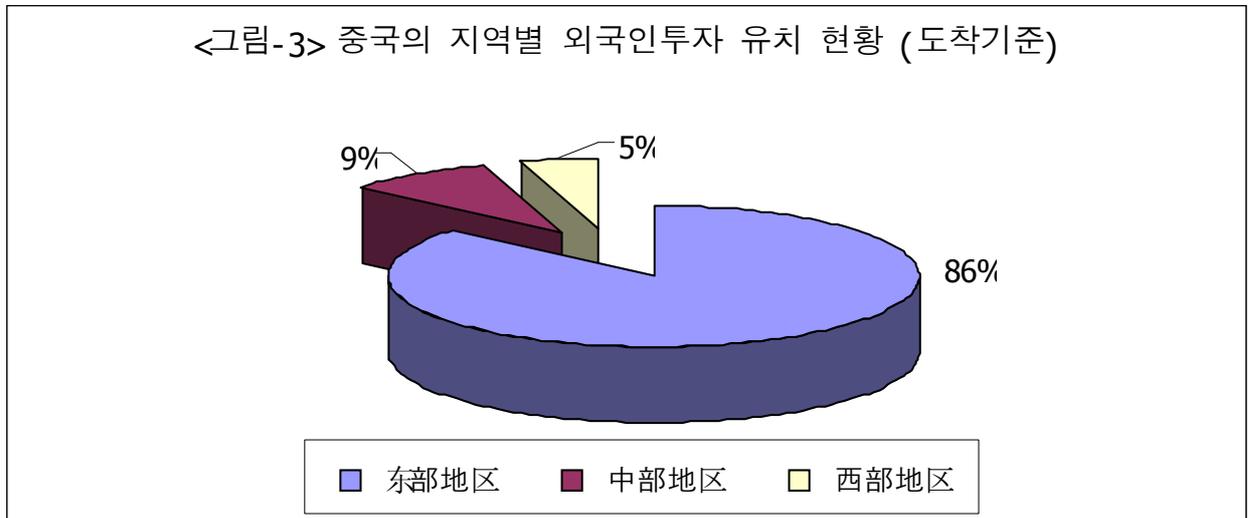
□ 권역별 외국인투자 추이

- 외국인투자는 중국의 동부지역에 주로 진출

- 장강삼각주, 환발해지역 등은 점차 특색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o 이들 지역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

- 중·서부지역의 외자유치도 비교적 빠른 성장세 시현



□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개발구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정책을 감안하여, 국가급 개발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

- 특히 국가급 개발구는 최상의 입지조건, 외향형 경제의 선두 역할, 첨단기술 산업의 밀집 등을 바탕으로 각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

□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외자기업의 역할이 점차 부각됨.

- 외자기업의 수출액은 2003년에 2,403.4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41.4% 성장하였으며 중국 총수출의 54.8%를 차지

- 2003년에 공업부문에서 외자기업의 부가가치는 1조 1,174억 위안을 기록,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전체공업의 27.2%를 차지

- 외자기업으로부터의 세수(稅收)는 2003년에 4,268억 달러를 기록, 전국 총 세수액의 20.9%를 차지

○ 이는 최근 수년간 공업부문의 세수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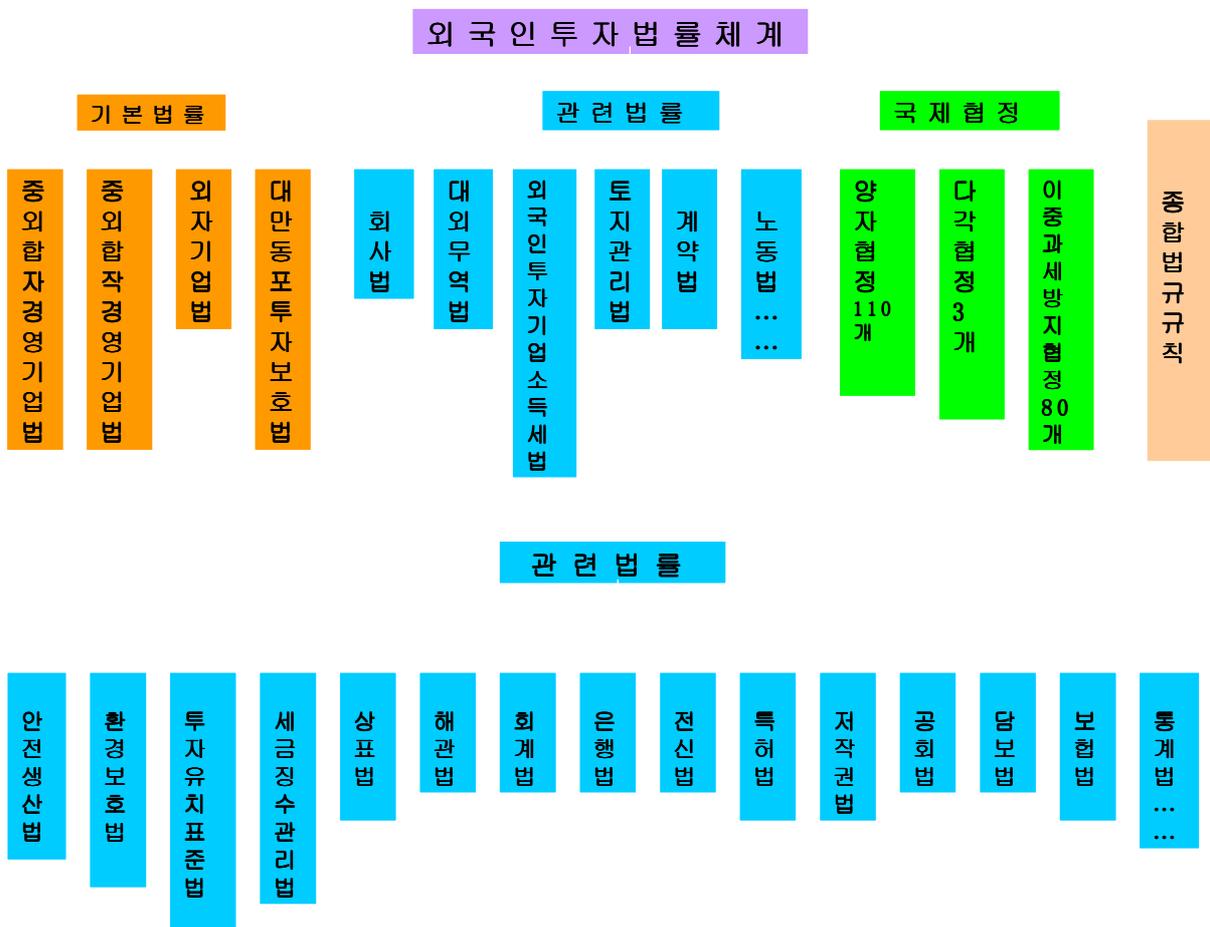
- 외자기업의 고용인원은 약 2,350만 명으로, 전국도시노동인구의 10%에 해

당

## 2. 외국인투자정책의 향후 방향

-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법률적·정책적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외국인투자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4>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체계도



## 종합법규 및 법칙

|             |               |              |             |          |            |        |          |                |            |             |              |             |               |
|-------------|---------------|--------------|-------------|----------|------------|--------|----------|----------------|------------|-------------|--------------|-------------|---------------|
| 외국인투자생산지도목록 | 중서부지역우세생산지도목록 | 국무원외국인투자장려규정 | 외국인투자기업청산방법 | 회사등록관리조례 | 합자기업각방출자규정 | 외화관리조례 | 외자통계제도이용 | 외국투자자 M & A 규정 | 외국인투자성회사규정 | 외국인투자주식회사규정 | 외국인투자주주권변경규정 | 외국인투자경내투자규정 | 서비스무역전문규정 ... |
|-------------|---------------|--------------|-------------|----------|------------|--------|----------|----------------|------------|-------------|--------------|-------------|---------------|

-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외자우대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외국인투자자들이 외자우대정책의 폐지를 우려하고 있으나, 중국의 1인당 투자액이 4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상태
  - 또한 WTO 가입후 외국인투자관련 법률의 정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관련 법률체계를 이미 완비<sup>1)</sup>
    - 단 지방정부의 외자우대조치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느냐가 중요하며, 지방의 문제가 있는 법률은 정리해야 함.
- 지역경제발전, 산업구조조정, 새로운 성장지역 형성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홍콩 및 마카오와 “경제·무역관계 긴밀화 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실시하여 주강삼각주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 전반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1) 자료: 『利用外资法规文件汇编』.

- 장강삼각주 지역의 외자유치는 신흥공업의 발전을 가져와 자본 및 기술집약형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 지역이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 환발해만 지역의 대외개방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 서부대개발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서부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외자유치정책을 연구·제정
- M&A에 의한 외자유치방식을 혁신하여 동북 老공업기지 진흥·발전 도모
- 현재 외국인투자자의 중국내 M&A 추진상의 주요 장애요인은 고용문제, 인수가격, 법규 등에서 비롯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對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조치 마련
- 외자를 통한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형성
- 외자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수출상품의 구조고도화를 적극 유도해나감.
- CEPA를 계기로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시장개방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체인점 등 소매유통을 포함하여 물류·운송부문의 개방도 추진
- 지적재산권 보호, 준조세 성격의 비용(乱收费) 폐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기술보호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대기업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三为主，一致力”，즉 공업·수출·외자유치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산업발전에 주

력한다는 방침을 견지

- 이를 위해 국가급 개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개발구의 2차 혁신과 지속가능발전을 촉진

□ 외국인투자 행정심판제도를 개혁, 시장경제발전에 적합한 새로운 외자관리체계 구축

## II. 토론 요지

問 : 중국정부는 최근 노동관련 법규 준수, 세금문제 등을 강조하며 외자기업 우대정책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한 및 관련 지침이 존재하는가? 외자기업의 과실송금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는가?

답 :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내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중국 법규의 준수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임. 앞에서 언급한 공회법과 관련, 중국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집행할 것임. 중국정부로서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공회의 결성을 방해할 생각이 없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규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지방정부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장려 차원에서 도입된 것임.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은 없음.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조치는 없음. 오히려 대부분의 투자자가 중국내의 양호한 투자기회를 바탕으로 재투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한국기업들도 동일한 현상을 보임. 외환관리국 국제수지통계에 따르면, 송금 규모는 크지 않음.

問 : 외자기업이 국유기업과의 M&A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북 3성과 기타 지역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재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등 동북3성 지역이 추진 중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해주기 바람.

답 : 동북 3성에서 M&A를 추진하는 외자기업에게는 특혜가 있을 것임. 특히 고용문제 해결이 다른 성(省)들에 비해 용이함. 한편, 연해지역은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구축되었으나, 기타 성(省)에서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진입함. 동북 3성의 사회보장체제가 완비되기까지는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임.

問 : 앞으로 중서부지역에도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될 것인가?

답 :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발전과 재정의 강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임. 이는 국유기업 개혁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임.

問 : 통계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기준을 거쳐 설립된 외자기업의 수가 50만개에 달함. 중국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실패·청산기업의 수와 지역별 통계가 있는가?

답 : 50만개 외자기업 중 현재 24만개 기업이 경영활동 중임. 청산기업들은 대부분 시장환경의 변화, 경영실패, 기한만기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외자기업의 90%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기업의 지역별 비중도 비슷한 상태임.

問 : 50만개 외자기업 중 현존하는 24만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26만개 기업은 청산·사업실패 또는 그 준비단계에 있는 것인가?

답 : 26만개 기업에는 제품선택 오류, 낮은 기업 경쟁력, 자금위기 등으로 실패한 기업도 있고, 합작관계 청산에 따른 중외합작기업도 있음. 또한, 기한만기로 경영활동이 중지된 기업도 있기 때문에 모두 실패한 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問 : 기준을 받았으나 실제 경영을 시작하지 못한 기업은 어느 정도인가?

답 :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그 숫자는 매우 적음.

問 : 현재 활동 중인 한국기업은 몇 개인가?

답 : 총 4만개 정도가 중국정부의 기준을 받아 설립되었으나 현재 운영중인 기업

은 2만개 정도임. 한국기업은 주로 산둥성, 요녕성, 강소성, 천진시, 상해시 등에 집중 분포함.

問 : 서부대개발사업과 관련된 외자유치실적에 대한 평가는? 동북3성의 외자유치에 대한 전망은?

답 : 서부대개발 전략은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임. 외국인투자의 서부지역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도 일부 우대정책을 제정하였음. 일부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 우대정책은 연해지역보다 양호함. 또한, 연해지역에서 제한되고 있는 투자항목도 서부지역에서는 투자장려 항목이 될 수 있음. 기타 서부지역의 비교우위에서 비롯된 프로젝트도 많음. 그러나 서부지역과 연해지역간의 투자격차는 증감 없이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동북 老공업기지 진흥정책은 전망이 밝은 편임. 동 지역의 설비나 기술수준은 높지 않으나 현재 중국정부가 각종 우대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 동북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빠르게 성장할 것임.

問 : 서부지역내 각 성(省)별 및 기업별 외국인투자 통계가 있는가?

답 : 서부대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 첫째, 지방재정조정제도 방식, 즉 서부지역의 세수가 적어 동부 연해지역의 세수 일부를 서부지역에 지원하는 것임. 둘째, 해외차관의 대부분을 서부지역의 전력, 교통 등 인프라건설에 투입함. 한편, 연해지역내 기업들의 對서부지역 투자를 장려함.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기업의 서부지역 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마련함. 서부대개발 사업은 시장수요, 노동력, 천연자원이 긴밀히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음. 서부지역 중에서도 중경, 성도, 서안은 양호한 시장조건을 지님. 연해지역에 집중된 IT기업들이 최근 서부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음. 또한, 외자기업의 서부지역 투자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재투자의 비중은 적고 대부분 신규투자임.

問 : 지방정부의 외자 우대정책 중, 세금감면 외에 현재 중앙정부가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답 :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앙정부의 기준을 거쳐야 함. (\*\*\*)